

『법화경』의 학·무학인 수기에 관한 연구

이상권

(금강대학교 불교학 박사 수료)

국문초록

본 연구는 『법화경(法華經)』 적문(迹門)의 정종분(正宗分)과 유통분(流通分)에 등장하는 학·무학인(學·無學人)의 수기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법화경』에 나타나는 성문 수기의 의미와 그 차이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법화경』 적문에서 학·무학인이 등장하는 품은 정종분에 해당하는 「제9수학무학인품(第九授學無學人記品)」과 유통분에 해당하는 「제13권지품(第十三勸持品)」이다. 이러한 두 품의 수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종분과 유통분의 형식적인 차이를 먼저 논의하고, 뒤에 두 품의 수기 내용을 분석하였다.

정종분에서는 석가모니불이 법을 설함[일불승(一佛乘)]에 있어 법설(法說), 비설(譬說), 인연설(因緣說)의 삼주설법(三周說法)을 통해 성문(聲聞)들에게 보살이 들어가는 일불승으로 가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일불승의 가르침은 보살들이 이해하는 가르침이지만 『법화경』 적문 가운데 정종분의 성문은 설법(正說)을 듣고 영해(領解)를 하여 석가모니불에게 술성(述成)과 수기를 받게 된다. 반면 『법화경』 적문의 유통분에서는 석가모니불이 주로 법사행과 그 이익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유통분에서 수기를 받는 성문은 법사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하여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종분의 성문수기의 전제는 정설, 영해, 술성, 수기인 반면, 유통분의 성문수기의 전제는 정설, 서원, 수기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서 「제9수학무학인품」과 「제13권지품」에서 등장하는 학·무학인이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는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중분에 해당하는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학·무학인은 ‘화성유(化城喻)’의 비유(정설)를 통해 일불승을 영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무학인은 석가모니불에게 술성과 수기를 받게 된다. 또한 유통분에 해당하는 「제13권지품」의 학·무학인은 법사행의 가르침(정설)을 받고 서원을 세우고 수기를 받지만 영해의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의 수기는 영해를 통해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품에서 나타나는 학·무학인 모두가 「제13권지품」에 들어서면서 공통적으로 법사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운다.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학·무학인이 서원을 발하였을 때 석가모니불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서원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3권지품」의 학·무학인이 받은 수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내세에 법사가 되어서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데, 이는 일불승의 가르침을 영해했다고 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들의 수기는 서원을 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두 품의 학·무학인은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영해를 통한 수기와 서원을 통한 수기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제어: 학·무학(學·無學), 삼주설법(三周設法), 수기(授記), 영해(領解), 서원(誓願)

I. 서론

천태지의(天台智顓, 538-597)는 『법화경(法華經)』에 대해 크게 적문(迹門)과 본문(本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적문에서는 석가모니불이 제자들에게 법을 설함에 있어 법설(法說), 비설(譬說), 인연설(因緣說)의 삼주설법(三周設法)을 통해 성문(聲聞)들에게도 보살행의 길인 일불승(一佛乘)을 설하고, 이에 따른 수기(授記)를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보살을 중심으로 교화가 이뤄졌던 다른 대승경전의 경향과는 달리, 성문 또한 불과(佛果)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문은 본래 생멸의 4제(四聖諦)를 수행하며, 이는 대승불교의 보살행과 구별되어 왔으므로 『법화경』에

서 성문이 수기를 받는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화경』에서 등장하는 성문의 수기를 주제로 다룬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세친(世親, 316-396)의 『법화경론』에 나타난 사중성문설을 중심으로 『법화경』이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설하고 있는지를 고찰¹⁾하거나, 『법화경』의 성문 수기를 통해 수행론²⁾을 살펴보거나, 『법화경』 적문에서 성문근기에 따른 비유를 고찰하거나³⁾, 『법화경』의 삼주설법에 관한 성문의 근기를 고찰⁴⁾하는 연구 등이 있다. 이처럼 『법화경』에서 등장하는 성문은 석가모니불에게 일불승의 가르침을 받고 영해하여 수기를 받았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법화경』 적문에서 성문이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법 구조 및 해석을 통해 그 수기의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법화경』의 성문 연구하는 데 핵심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불승에 대한 영해의 표현이나 명확한 서원이 드러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은 학·무학인(學·無學人)을 중심으로, 그들이 받은 수기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법화경』의 적문에서 학·무학인이 수기를 받는 장면은 「제9학무학인기품(第九授學無學人記品)」과 「제13권지품(第十三勸持品)」에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9수학무학인기품」이 적문 중 정중분에, 「제13권지품」이 적문 중 유통분에 각각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정중분에서는 주로 성문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일불승)을 듣고 영해(領解)하여 술성(述成)과 수기(授記)를 받는다. 또한 유통분에서는 주로 보살들에게 법사행(法師行)에 관한 설법을 하며, 이를

- 1) 하영수 2021. 여기 4종의 성문 가운데 석가모니불에게 명확하게 수기를 받은 이들은 퇴보리심성문(退菩提心聲聞)과 응화성문(應化聲聞)이며, 나머지 두 성문은 석가모니불이 아닌 상불경보살에게 수기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나머지 두 성문은 석가모니불이 아닌 상불경보살의 수기이므로 본 연구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논의하지 않겠다.
- 2) 최기표 2013. 여기서는 성문이 확고한 보살심을 발해야 초주 이상에 오른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성불의 시기와 명호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수기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자는 서원이 드러나지 않은 성문들이 수기를 받는 것을 바탕으로, 『법화경』 적문의 성문 수기에 관한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김희재 2023. 『법화경』 적문에서 성문근기에 따른 비유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여기서 삼주설법상 부다가 성문에게 사용하는 비유는 중근기와 하근기 성문에게 개현(開顯)을 이해시키기 위한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 4) 광도 2017a. 이 연구에서는 성문들은 겸단대대(兼但對帶)로 방편의 설법을 들어서 근기가 차츰 성숙하여 법화시에 이르러 원교의 설법(일불승)을 듣고 영해하여 수기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이어 원교의 가르침을 영해한 성문이 받은 수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석가모니불은 각각의 성문들에게 수기를 주지만 그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성문의 수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해 이들이 서원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정종분과 유통분의 주요 내용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제9학무학인기품」과 「제13권지품」에서 나타나는 학·무학인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두 품에서의 석가모니불이 설하는 주요 가르침과 이를 받아들이는 학·무학인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9학무학인기품」과 「제13권지품」에서 등장하는 학·무학인의 수기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학·무학인의 수기 형태에 대한 분석은 『법화경』에 나타난 성문 수기의 의미와 그 차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I. 적문 정종분의 수기

천태지의는 『법화문구(法華文句)』에서 『법화경』 적문(迹門)⁵⁾의 정종분(正宗分)⁶⁾ 설법에 대해 크게 법설(法說)과 비설(譬說) 그리고 숙세인연설(宿世因緣說)의 3주설법으로 나누어 개관현실로 설명하고 있다. 1주의 설법은 정설(正說), 영해(領解), 술성(述成)⁷⁾, 수기(授記)로 이어지며, 이것이 3번 반복되어서 3주설법이 되고 있다.⁸⁾ 유통분(流通分)에서는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유포하는 공덕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⁹⁾ 이처럼 『법화경』 정종분에서 성문들이 일불승의 가르침을 받고 수기를 받으며, 유통분에서 성문들이 법사행에 관하여 듣고 수기를 받는다. 이처럼 『법화경』 적문에서는 많은 성문들이 수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문들이 어떠한 근거로 수기를 받는 지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정종분에서는 주로 성문들이 석가모니불에게 가르침을 받고 영해하여 수기를 받게

5) 이기운 2010, 365. “천태지의는 본·적사상을 『법화경』에 적용하여 본문과 적문으로 해석하였고, 이를 천태 교학에 수용하였으며, 『법화경』 해석의 근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본문과 적문 가운데 적문의 성문이 수기를 받는 것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6) 『妙法蓮華經文句』 卷1, 「序品」(T. 34, 2a12-13): 初品為序 方便訖授學無學人記品 為正法師訖安樂行為流通. 천태지의는 『법화문구』의 적문을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유통분(流通分)의 3분(三分)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7) 술성(述成)의 내용은 석가모니불의 수기(授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바, 본 논의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8) 광도 2017b, 32.

9) 『妙法蓮華經文句』 卷8, 「釋法師品」(T. 34, 108c11-12): 釋尊自說 弘經功福 命竟流通.

된다. 이처럼 성문들이 수기를 받는 내용은 다른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법화경』만의 특징이다. 그 특징은 적문의 성문들이 붓다에게 일불승의 가르침을 받고, 영해하여 수기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불승에 대해 『법화경』의 「제2방편품(第二方便品)」에서 석가모니불은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모든 부처님께서서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시고, 모든 하시는 것은 항상 이 일 하나로서 오로지 불지지견(佛之知見)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리불아, 여래는 다만 일불승(一佛乘)으로 중생에게 설법을 한다. 다른 승이 없으며 2승이나 3승이 없다.¹⁰⁾

이처럼 일불승의 법은 오직 보살만을 교화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화경』 적문에서는 보살뿐만 아니라 성문들이 일불승의 가르침을 받고 영해하여 수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적문의 성문들이 일불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수용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정중분에 나타나는 성문들의 수기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영해와 수기

『법화경』 적문에서는 여러 성문들이 일불승의 가르침을 받고 수기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성문은 「제3비유품(第三譬喻品)」, 「제6수기품(第六授記品)」, 「제8오백제자수기품(第八五百弟子授記品)」, 「제9수학무학인기품(第九授學無學人記品)」, 「제13권지품(第十三勸持品)」 등의 품에서 수기를 받고 있다. 이것을 『법화문구』에서 밝힌 삼주설법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1>과 같다.

10) 『妙法蓮華經』卷1, 「方便品」(T. 9, 7a29-b4): 諸佛如來但教化菩薩 諸有所作 常為一事 唯以佛之知見示悟眾生 舍利弗 如來但以一佛乘故 為眾生說法 無有餘乘 若二 若三.

〈표1〉. 『법화경』 적문의 성문 수기

적문	三分	說法		品	授記 대상	受記名	
	정중분	삼주 설법	법설	비설	「제3품」	사리불	화광
「제6품」						마하가섭	광명
						수보리	명상
			마하가전연	엄부나제금광			
			대목건련	다미라발전단향			
인연설			「제8품」	부루나미다라니자	범명		
				교진여와 500인	보명		
			「제9품」	아난	산해혜자재통왕불		
				라후라	도칠보화		
				2천학무학	보상		
유통분			유통	「제13품」	마하과사과제, 6천학무학비구니	일체중생회견	
					야소다라	구족천만광상	

위의 〈표1〉에서 보듯이 정중분에서 석가모니불이 수기하는 성문은 법설·비설·인연설의 3주설법을 통해 일불승의 법을 영해하여 수기를 받은 것이며, 유통분의 성문은 앞의 「제10법사품」에서 설해진 법사행에 관한 설법을 통해 서원을 세워 수기를 받은 것이다.

정중분에서 정설로 설명되는 일불승의 가르침은 성문이 아닌 보살이 영해할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정중분에 등장하는 성문들은 일불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영해하여서 수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의문점은 「제9수학무학인기품」에서 아난이 수기를 받는 장면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아난은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나 석가모니불에게 가르침을 받고 영해하여 수기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수기에 대해 8,000의 신발의보살들은 대보살도 받지 못하는 수기를 어떻게 성문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심에 대해 「제9수학무학인기품」에서 석가모니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와 아난은 공왕불(空王佛)의 처소에서 동시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아난은 항상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였고, 나는 항상 열심히 정진을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었으며, 아난은 나의 법을 호지하고 또한 미래의 여러 부처님의 법장을 호지하여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하게 할 것이다. 그 본원이 이와 같으므로 이러한 수기를 받게 되었다.¹¹⁾

이처럼 아난은 석가모니불과 전생에 공왕불에게 함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때 아난은 법장을 호지하고,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으므로 현재는 성문의 모습으로 있지만 과거에 이미 서원을 세웠던 보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법은 석가모니불과 아난의 숙세의 인연을 통해 앞의 품에서 설한 법설과 비설을 이해하지 못한 하근인을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근인은 법설과 비설을 들었음에도 영해를 하지 못하고, 숙세인연설을 들어서야 영해를 한 성문을 말한다. 중근인은 법설을 듣고 바로 영해를 하지 못하였지만 비설을 통해 영해를 한 성문이며, 상근인은 법설만을 듣고도 바로 영해를 할 수 있는 성문을 말한다.

『법화문구』에서는 이러한 상·중·하근인¹²⁾이 법설, 비설, 인연설의 삼주설법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칼에 비유하였다.

세 가지 칼로 나무를 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날카로운 칼은 1번에 자르고, 중간 칼은 2번을 내리쳐서 자르고, 둔한 칼은 3번에 걸쳐 내리쳐야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세 가지 칼에서 날카롭다느니 둔하다느니 하는 이름은 상실되지 않지만, 나무가 잘라지는 점은 같다.¹³⁾

이처럼 『법화경』에 등장하는 성문의 상근인은 1번[법설], 중근인은 2번[법설·비설], 하근인은 3번[법설·비설·인연설]을 통해 일불승의 깨달음을 얻었음을 밝히고 있다.

11) 『妙法蓮華經』 卷4, 「授學無學人記品」(T. 9, 30a2-7): 我與阿難等 於空王佛所 同時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阿難常樂多聞 我常勤精進 是故我已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而阿難護持我法 亦護將來諸佛法藏 教化成就 諸菩薩眾 其本願如是 故獲斯記.

12) 본 문맥에서의 상·중·하근인 개념은 천태지지의 『법화문구』에서 『법화경』에 등장하는 성문들을 상·중·하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전제는 『법화경』 내부에 한정된 성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3) 『妙法蓮華經文句』 卷4, 「釋方便品」(T. 34, 47a5-6): 譬三刀斫木 利一 中二 鈍者三下 利鈍之名不失 木斷之處是同.

위 인용문의 비유에 “나무가 잘라지는 점은 같다”는 말은, 비록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순서는 서로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중·하근의 성문에 관하여 삼주설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상·중·하근과 삼주설법

說法	品	聲問人	根機	칼의 비유	
삼주설법	법설	「제3품」	사리불	상근인	一刀斷木
	비설	「제6품」	마하가섭	중근인	二刀斷木
			수보리		
			마하가전연		
	인연설	「제8품」	부루나미다라니자	하근인	三刀斷木
			교진여와 500인		
		「제9품」	아난		
			라후라 2,000인		

또한 『법화문구(法華文句)』에서 「제8오백제자수기품」 이전에는 발적(發跡)¹⁴⁾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 품에 들어와서 발적을 구하고 기를 청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는 왜 발적을 구하지 않았는가. 하근(下根)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발적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하근마저도 이미 영해하여 권화(權化)의 일이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근을 상대하여 발적을 한다면 중근(中根)과 상근(上根)도 권화하였음을 알게 된다. 만약 상근과 중근을 대상으로 발적한다면 하근에게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에서는 발적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¹⁵⁾

14) 여기서 발적(發跡)은 제자의 과거 인연을 통해 적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15) 『妙法蓮華經文句』卷7, 「釋五百弟子受記品」(T. 34, 105a19-24): 又權實不可思議 非言非念而言而念 非言而言 故上來口陳領解 亦非念而念 今則默念領解 上來何意不求發迹 為下根未悟 是故不求發迹 今下根已解 權化事足也 若下根發迹 則知中上亦權 若約上中 則於下不便故也.

이처럼 「제8오백제자수기품」부터는 하근인까지 영해를 하였기 때문에 발적을 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전에 「제8오백제자수기품」 이전에 발적을 청하였다면 하근인들은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하근인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교화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발적을 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8오백제자수기품」 다음으로 「제9수학무학인기품」에서 학·무학인이 본격적으로 수기를 받기 시작한다. 이는 곧 이들이 일불승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정종분의 형식인 정설, 영해, 술성, 수기를 중심으로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학·무학인의 수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제9품」의 학·무학인

석가모니불은 법설과 비설을 하였음에도 이해를 하지 못한 하근인들을 위해 「제7화성유품(第七化城喻品)」에서 속제인연설을 하였으며, 이러한 설법은 정설에 해당한다. 또한 이것을 듣고 「제8오백제자수기품」, 「제9수학무학인기품」에서는 성문들은 영해를 하여 석가모니불이 술성과 수기를 나타내고 있다. 「제9수학무학인기품」에서는 영해를 한 아난과 라후라 그리고 학·무학인의 성문 2,000인에게 수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기에 대해 『법화문구』에서는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내용을 크게 청기(請記)와 수기(授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일불승의 법을 영해하여 수기를 청하는 주체와 수기를 받는 대상은 아난과 라후라의 2인과 나머지 2,000인의 성문제자로 동일하다.

1) 청기

(1) 아난과 라후라의 청기: 「제9수학무학인기품」에서 처음 청기를 하는 것은 아난과 라후라이며, 이 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만약 우리가 늘 생각하니,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아니 즐거울까¹⁶⁾”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석가모니불에게 예를 올리고 아난과 라후라는 “만약 부처님께서 보시고 아록다라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주신다면 우리들의 원이 만족되고 대중의 희망이 또한 만족될 것입니다¹⁷⁾”라고 청기를 하였다. 여기서

16) 『妙法蓮華經』卷4, 「授學無學人記品」(T. 9, 29b23): 爾時阿難 羅睺羅而作是念 我等每自思惟 設得受記 不亦快乎.

17) 『妙法蓮華經』卷4, 「授學無學人記品」(T. 9, 29b28-c1): 若佛見授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者 我願既滿 眾望亦足.

아난과 라후라는 '화성유'의 정설을 듣고 영해를 하였으므로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고자 청을 하고 있다.

(2) 학·무학의 청기: 아난과 라후라의 청기를 보고 학·무학의 2,000인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석가모니불 앞에 이르러 일심(一心)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러 보며, 아난과 라후라의 소원과 같은 심정으로 한쪽에 머물러 섰다.¹⁸⁾ 이처럼 학·무학인들은 묵념을 통해 석가모니불에게 자신들도 수기를 내려주길 청한 것이다. 『법화문구』에서는 학·무학의 2,000인의 청기(請記)에도 다만 묵념(默念)·인례(引例)가 있을 따름이나, 두 의미가 같기 때문에 아난의 원과 같다고 한 것뿐이라고¹⁹⁾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청하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을 뿐, 아난과 라후라처럼 수기를 바라는 뜻을 석가모니불에게 드러낸 것이다.

2) 수기

다음으로 수기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난과 라후라 그리고 학·무학인 2,000인에게 차례로 수기를 주는데 크게 1)득과(得果), 2)행인(行因), 3)교화제자(教化弟子), 4)국토장엄(國土莊嚴), 5)수명, 6)정법과 상법의 길이 등이다.²⁰⁾ 이러한 순서대로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수기를 <표3>²¹⁾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 『妙法蓮華經』卷4, 「授學無學人記品」(T. 9, 29c1-3): 爾時 學無學聲聞弟子二千人 皆從座起 偏袒右肩 到於佛前 一心合掌 瞻仰世尊 如阿難 羅睺羅所願 住立一面.

19) 『妙法蓮華經文句』卷8, 「釋授學無學人記品」(T. 34, 107c14-16): 二千請記但有默念 引例 二意同故言如阿難願耳 無發言者 無重無勝等事也.

20) 광도 2017b, 136.

21) 『妙法蓮華經』卷4, 「授學無學人記品」(T. 9, 29c3-30b12): 爾時佛告阿難 汝於來世當得作佛 號山海慧自在通王如來 …中略… 爾時佛告羅睺羅 汝於來世當得作佛 號蹈七寶華如來 …中略… 爾時世尊見學 無學二千人 其意柔軟 寂然清淨 一心觀佛 佛告阿難 汝見是學 無學二千人不 唯然 已見 阿難 是諸人等 當供養五十世界 微塵數諸佛如來 恭敬尊重 護持法藏 未後同時於十方國各得成佛 皆同一號 名曰寶相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壽命一劫 國土莊嚴 聲聞 菩薩 正法 像法 皆悉同等.

〈표3〉.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수기 내용

수기자 내용	아난	라후라	학·무학인
득과(得果)	산해혜자재통왕불	도칠보화불	보상불
행인(行因)	62억불	10세계미진수불	50세계미진수불
교화제자 (教化弟子)	20천만억 향하사 보살		
국토장엄 (國土莊嚴)	상립승변		
수명(壽命)	천만억 이승지겁		일 겁
정법과 상법의 길이	수명x4 = 정법x2 = 상법		

이러한 수기는 아난과 라후라 그리고 학·무학 2,000인 순으로 진행된다. 비록 이들의 수기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예고된 국토와 교화 제자는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성불하여 동일한 국토에서 동일한 제자들을 교화하는 시기는 서로 겹쳐질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아난의 수기를 들은 8,000의 신발의보살들은 대보살들도 받지 못한 수기를 성문들이 받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²²⁾ 『법화문구』에서는 8,000의 신발의보살이 위의 의문을 갖는 것을 예전 방등의 시기의 모든 보살들이 무량겁의 시간 동안 수행한 끝에 성불의 수기를 받게 되었는데²³⁾, 어떻게 지금에 와서 발심한 성문이 곧바로 수기를 받는지 납득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석가모니불은 이러한 이들에게 “나와 아난은 공왕불(空王佛)의 처소에서 동시에 아록다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²⁴⁾”고 말하였다. 이는 석가모니불이 8,000의

22) 『妙法蓮華經』卷4, 『授學無學人記品』(T. 9, 29c28-30a1): 爾時會中新發意菩薩八千人 咸作是念 我等尚不開諸大菩薩得如是記 有何因緣而諸聲聞得如是決.

23) 『妙法蓮華經文句』卷8, 『釋授學無學人記品』(T. 34, 107c18-21): 疑者通疑 聲聞今日發心 即蒙佛記國淨若此 昔方等中記諸菩薩 無量劫行 乃得佛記.

24) 『妙法蓮華經』卷4, 『授學無學人記品』(T. 9, 30a2-4): 我與阿難等 於空王佛所 同時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신발의보살들에게 이미 아난은 과거세에 석가모니불과 함께 발심을 한 존재임을 밝히는 동시에, 아난이 신발의보살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일불승의 가르침을 영해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아난은 이미 “나의 법을 호지하고 또한 미래의 여러 부처님의 법장을 호지하여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하게 할 것이다. 그 본원이 이와 같으므로 이러한 수기를 받게 되었다²⁵⁾”고 하였다. 이처럼 석가모니불은 아난과의 과거세 인연과 본원을 들어서, 수기의 근거가 단지 현재의 발심이 아니라 오랜 서원과 행원에 기반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이어 함께 수기를 청한 라후라와 학·무학 2,000인도 수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난과 다르게, 이 품에서 수기를 받은 학·무학 2,000인은 정종분의 수기 조건[정설, 영해, 술성, 수기]인 영해의 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법화문구』의 「제8오백제자수기품」에서는 묵념 영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의 2주(二周), 법설과 비설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다 말을 통해 영해했음을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어찌해 묵념(默念)으로 그친 것인가. 위에서는 하근이 아직 깨닫지 못했으므로 영해의 일은 모름지기 말을 분명히 하여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나, 지금은 하근도 이미 깨달았기에 격려할 대상이 없어졌으니, 그러므로 묵념할 뿐 말로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또 위에서는 다만 영해를 표시하고 발적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말한대도 혐오(嫌惡)를 사지 않았던 것이나 지금은 영해하기도 하고 발적을 구하기도 하니, 이해하는 까닭에 염(念)하며 남의 혐오를 피하고자 하는 까닭에 침묵한 것이어서, 묵념한 일은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²⁶⁾

비록 학·무학 2,000인의 영해의 표현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법화문구』에 따르면 「제8오백제자수기품」의 성문과 같이 학·무학 2,000인은 하근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도 영해의 표현을 묵념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무학 2,000인의 수기 당시 아난의 수기를 의심했던 8,000의 신발의보살이 학·무학 2,000인의 수기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 또한 학·무학 2,000인의 수기를

25) 『妙法蓮華經』卷4, 「授學無學人記品」(T. 9, 30a2-7): 我與阿難等 於空王佛所 同時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阿難常樂多聞 我常勤精進 是故我已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而阿難護持我法 亦護將來諸佛法藏 教化成就 諸菩薩眾 其本願如是 故獲斯記.

26) 『妙法蓮華經文句』卷7, 「釋五百弟子受記品」(T. 34, 105a13-18): 上二周得悟 皆發言領解 此何默念 上為下根 未悟 事須彰言勸動 今下根已悟 無所勸動 故默念不言 又上來但領解不求發迹言則不嫌 今則亦解亦發 亦解故念 避物譏嫌故默 默念允宜也.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무학 2,000인은 영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일불승의 가르침에 대한 영해가 있었을 것이다.

Ⅲ. 적문 유통분의 수기

『법화경』 「제2방편품」부터 「제9수학무학기품」까지 정중분에 해당하며, 여기서 대부분의 성문이 3주설법을 통해 영해를 하여 수기를 받게 되었다. 이후 「제10법사품」부터 「제14안락행품」까지는 유통분에 해당하며, 주로 『법화경』의 유통과 그 이익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유통분에서 나타나는 수기는 정중분과 다르게 석가모니불이 대부분 보살에게 설법을 하고 있으며, 설법을 들은 보살은 설법을 토대로 서원을 세우고 있다. 이 유통분에 등장하는 보살의 서원은 대부분 『법화경』 유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화문구』에서는 석가모니불이 스스로 홍경(弘經)의 공복(功福)을 설하여 유통을 명한다²⁷⁾고 하였다. 이처럼 유통분에서 석가모니불은 『법화경』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과 관련된 설법은 「제10법사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제10법사품」은 오종법사(五種法師)로 ① 수지(受持), ② 독(讀), ③ 송(誦), ④ 해설(解說), ⑤ 서사(書寫)²⁸⁾를 밝히고 있다. 「제10법사품」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행을 통해서 『법화경』을 유통해야 함을 말하며, 이와 같은 법사행을 했을 때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10법사품」에서 밝히는 법사행의 이익을 듣고, 유통분의 보살은 서원을 세우게 된다. 이처럼 유통분에서는 보살들을 위해 법사행을 주로 설하고 있지만, 이 유통분 안에서도 「제13권지품」에서는 성문[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 그리고 야소다라]의 수기가 이루어진다. 유통분에서 이와 같이 성문이 수기를 받는 사례를 중요 논점으로 두고자 한다.

이러한 논점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제9수학무학인기품」에서 등장하는 학·무학의 성문 2,000인과 「제13권지품」에서 나타나는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이 수기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와 이들이 받은 수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7) 『妙法蓮華經文句』卷7, 「釋五百弟子受記品」(T. 34, 108c11-12): 釋尊自說 弘經功福 命覺流通.

28) 『妙法蓮華經文句』卷8, 「釋五百弟子受記品」(T. 34, 107c26-27): 此品五種法師 一受持 二讀 三誦 四解說 五書寫.

1. 서원과 수기

『법화경』의 적문에서 「제9수학무학인기품」 이후 「제10법사품」부터 「제14안락행품」까지는 유통분에 해당하며, 주로 『법화경』의 유통과 그 이익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유통분에서는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 서원을 세운 이들이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는다. 또한 「제10법사품」에서는 석가모니불은 “『묘법연화경』의 한 계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따라 기뻐하는 이에게는 다 수기를 내리며,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게 되리라²⁹⁾”라고 하였다. 이는 유통분에서 수기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일념 수희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통분 안에서 수기는 「제12제바달다품」과 「제13권지품」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수기를 받는 이들을 <표4>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유통분의 수기

	說法	品	授記者	授記名	法師行 時期
유통분	유통과 이익	「제12품」	제바달다	천왕	過去~
		「제13품」	마하파사파제	일체증생희견	未來~
			6,000의 학·무학비구니		
			야소다라	구족천만광상	

여기서 「제12제바달다품」의 제바달다는 묘법을 유통하는 법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제13권지품」의 마하파사파제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 그리고 야소다라는 성문으로서 수기를 받게 된다.

이 두 품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각각 법사행을 하는 시점에 차이가 드러나 있다.

29) 『妙法蓮華經』卷4, 「法師品」(T. 9, 30c5-6): 聞妙法華經一偈一句 乃至一念隨喜者 我皆與授記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제12제바달다품」의 제바달다는 이미 전생에서 부터 법사로서 석가모니불에게 『법화경』을 전해주었으며, 이로 인해 석가모니불은 6바라밀을 구축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다³⁰⁾고 하였다. 「제13권지품」의 마하파사과제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 그리고 야소다라는 「제10법사품」에서 법사행의 가르침을 받고, 「제12제바달다품」에서 용녀의 성불³¹⁾을 듣고 「제13권지품」에 들어서 서원을 세우고 수기를 받게 된다. 여기서 수기 내용을 보면 “내세(來世)에 마땅히 6만8천억 제불의 법 중에서 큰 법사가 되리니,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들도 그 때에 법사되리라”고 하였다.

「제12제바달다품」과 「제13권지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지만, 제바달다는 과거에서 부터 법사행을 하여 성불하는 반면, 마하파사과제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 그리고 야소다라는 내세부터 법사행을 하여 성불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말할 수 있다.

2. 「제13품」의 학·무학인

「제13권지품」의 내용을 『법화문구』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20,000의 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이 땅에 경을 수지함이다. 두 번째는 500·8,000의 성문이 서원을 일으켜 타국에서 경을 유통함이다. 세 번째는 여러 비구니들이 기(記)를 청함이다.³²⁾ 여기서 첫 번째는 보살이 서원을 채우는 행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500·8,000의 성문은 이미 수기를 받은 자³³⁾이며, 이들은 이 품에 들어와 법사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운다. 세 번째는 마하파사과제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 그리고 야소다라는 법사행에 관한 설법을 듣고 서원을 세워 수기를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분류 가운데 수기를 함께 받는 성문인 마하파사과제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을 중점으로 『법화경』의 정중분과 유통분의 수기에 관하여

30) 『妙法蓮華經』卷4, 「提婆達多品」(T. 9, 34c26-35a1): 由提婆達多善知識故 令我具足六波羅蜜 慈悲喜捨 三十二相八十種好 紫磨金色 十力 四無所畏 四攝法 十八不共神通道力 成等正覺 廣度衆生 皆因提婆達多善知識故.

31) 『妙法蓮華經』卷4, 「提婆達多品」(T. 9, 35c16-18): 當時衆會 皆見龍女忽然之間變成男子 具菩薩行 卽往南方無垢世界 坐寶蓮華 成等正覺.

32) 『妙法蓮華經文句』卷8, 「釋持品」(T. 34, 117b8-9): 一二萬菩薩奉命此土持經 二五百八千聲聞發誓他國流通 三諸尼請記.

33) 『妙法蓮華經』卷4, 「勸持品」(T. 9, 36a7-8): 爾時衆中五百阿羅漢得受記者 白佛言 …中略… 復有學,無學八千人 得受記者. 「13품」에서는 500의 성문과 8000의 학·무학인이 「13품」 이전에 수기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논의하고자 한다.

1) 청기

「제13권지품」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 유통에 대해 설법하자, 이를 들은 20,000의 보살과 500·8,000의 성문들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알리겠다는 서원을 세운다. 이어서 마하파사과제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은 함께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존안을 우러러 보며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³⁴⁾ 마하파사과제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들 또한 앞의 보살과 성문들처럼 서원을 세웠으므로 석가모니 불에게 청기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하파사과제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의 청기는 「제9수학무학인기품」에 등장한 학·무학의 2,000인의 청기와 동일하게 묵념으로 이루어졌다. 정종분에서는 성문이 수기를 받기 위한 전제가 일불승의 영해였으나, 유통분에서는 주요 가르침이 법사행이므로 성문이 수기를 받는 전제를 일불승의 영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그 조건은 다소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9수학무학인기품」과 「제13권지품」의 학·무학인의 청기만을 보고 이들의 수기에 대한 차이를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2) 수기

「제13권지품」의 수기는 석가모니불의 이모인 마하파사과제 비구니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고자 우러러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마하파사과제 비구니와 학·무학의 비구니 6,000인의 비구니의 청기에 대하여 석가모니불은 다음과 같이 수기를 내렸다.

그래도 이제 네가 기(記) 받음을 분명히 알려 한다면, 이르거니와 내세에 마땅히 6만8천 억 제불의 범 중에서 큰 법사가 되리니, 육천의 학·무학 비구니들도 그 때에 법사되리라. 네가 이리 점차로 보살도를 갖춘 끝에 반드시 부처되어, 이름을 일체중생희견여래(一切衆生喜見如來)·응공·정변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천인사·불세존이라 이르리라. 교담 미³⁵⁾야. 이 일체중생희견불과 6,000 보살이 차례로 기(記)를 주어 다 아록다라삼막삼보리를

34) 『妙法蓮華經』 卷4, 「勸持品」(T. 9, 36a12-14): 佛姨母摩訶波闍波提比丘尼 與學無學比丘尼六千人俱 從座而起 一心合掌 瞻仰尊顏 目不暫捨.

35) 마하파사과제 비구니를 지칭함.

얻게 되리라.³⁶⁾

마하파사과제와 학·무학 6,000인의 비구니는 이전에 설해진 법사행의 공덕과 이익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서원을 세워 법사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학·무학인은 본래 진리를 닦는 성문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자비의 서원이 결합됨으로써 보살의 길로 나아가 일불승으로 가고자 하므로 결국 석가모니불로부터 성불의 수기를 받는 존재로 전환된다.

이처럼 「제13권지품」에 나타나는 학·무학 6,000인은 현재 설해지고 있는 법사행의 가르침을 듣고 법사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하지만 석가모니불이 이들에게 주었던 수기를 살펴보면, 이들은 내세의 법사가 되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라고 수기를 받는다. 「제9수학무학인기품」에 등장하는 학·무학인은 「제13권지품」에 들어와서 타토에서 법사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으며, 이들이 법사행을 하는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은 이미 수기를 받은 보살³⁷⁾에 해당하며, 그들의 서원에 석가모니불이 응답하지 않음으로 그 서원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법사행을 실행하는 시점으로 이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이들이 수기를 받는 전제 조건을 통해서 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학·무학인은 정설을 듣고 일불승의 법을 영해하였지만, 「제13권지품」의 학·무학인 6,000은 일불승에 대한 영해의 표현을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제13권지품」에서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크게 기뻐하고 타방국토에서 널리 이 경을 설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³⁸⁾ 이처럼 「제13권지품」의 학·무학인 6,000의 수기는 일불승의 영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들의 서원과 수기의 관계를 연관 지어 본다면, 이들이 수기를 받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서원을 통한 수기의 형태는 『법화경』 외에 다른 경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화경(悲華經)』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전생으로 불순태자가 등장하는데 이때 불순태자는 처음으로 발심하여 서원을 세우게 된다. 이때 불순태자는 일불승의 영해가 없

36) 『妙法蓮華經』卷4, 「勸持品」(T. 9, 36a17-24): 今汝欲知記者 將來之世 當於六萬八千億諸佛法中爲大法師 及六千學無學比丘尼俱爲法師 汝如是漸漸具菩薩道 當得作佛 號一切衆生喜見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憍曇彌 是一切衆生喜見佛及六千菩薩 轉次授記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37) 『妙法蓮華經文句』卷8, 「釋持品」(T. 34, 117b9-10): 此諸聲聞已成大士。

38) 『妙法蓮華經』卷4, 「勸持品」(T. 9, 36b2-8): 爾時摩訶波闍波提比丘尼及耶輸陀羅比丘尼 并其眷屬 皆大歡喜 得未曾有 …中略… 世尊 我等亦能於他方國土廣宣此經。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불(寶藏佛)에게 수기를 받게 된다.³⁹⁾ 또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서는 마하가섭이 석가모니불에게 어떤 전타라가 한 번의 발심으로 수기를 받은 것에 대한 연유를 물으며, 이러한 물음에 석가모니불은 빠르게 원을 세우면 빠른 수기를 준다고 하였다.⁴⁰⁾ 이러한 두 경전에서는 일불승의 영해가 따로 없음에도 이들이 서원을 세웠으므로 그에 맞는 수기가 내려진다. 이 외에도 여러 경전에서는 일불승의 영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통한 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13권지품」의 학·무학 6,000인의 수기 또한 일불승의 영해는 모호하지만 법사행을 하겠다는 서원이 있으므로 수기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학·무학 2,000인의 수기는 일불승의 영해로 이루어진 것이며, 「제13권지품」의 학·무학 6,000인의 수기는 서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법화경』 적문에서 등장하는 학·무학인은 성문승을 넘어, 일불승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나타난다. 정종분 가운데 「제9수학무학인기품」과 유통분 가운데 「제13권지품」에 등장하는 학·무학인은 모두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두 품의 학·무학인은 수기의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중심으로 두 품을 분석해 보았다.

정종분에 나타나는 성문c에 대한 내용은 정설의 영해를 통한 술성과 수기를 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9수학무학인기품」에서의 학·무학인 2,000인은 ‘화성유(化城喻)’의 비유[정설]를 통해 진리로 향하는 길에서 임시로 만들어진 ‘화성(化城)’이라는 방편을 지나, 궁극적인 목적지인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영해하게 된다. 여

39) 『悲華經』 卷3, 「諸菩薩本授記品」(T. 3, 85c20-186a24): 願我行菩薩道時 若有衆生受諸苦惱 恐怖等事 退失正法 墮大闇處 憂愁孤窮 無有救護 無依無舍 若能念我 稱我名字 若其爲我天耳所聞 天眼所見 是衆生等 若不得免斯苦惱者 我終不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中略… 善男子 汝於後夜種種莊嚴 在菩提樹下坐金剛座 於一念中間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號遍出一切光明功德山王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 其佛壽命九十六億那由他百千劫 般涅槃已 正法住世六十三億劫

40) 『大般涅槃經』 卷10, (T. 12, 423b6-23): 迦葉復言 拘尸那城有旃陀羅 名曰歡喜 佛記是人 由一發心 當於此界千佛數中 速成無上正眞之道 以何等故 如來不記尊者舍利弗 目犍連等速成佛道 佛言 善男子 或有聲聞 緣覺 菩薩作誓願言 我當久久護持正法 然後乃成無上佛道 以發速願 故與速記 …中略… 以是義故 隨發速願 故與速記 護正法者 爲授遠記

기서 학·무학인 2,000인은 말로 영해를 표현하지 않고 묵념으로 일불승을 영해했다는 것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무학인은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받게 된다. 반면 유통분에 나타나는 성문에 대한 내용은 정설, 서원을 통한 수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13권지품」에서의 학·무학인 6,000인은 앞의 범사행의 가르침[정설]과 그 이익에 대해 듣고 앞의 보살들에 이어 서원을 세운다. 여기서 학·무학인 6,000인은 수기를 받고 있지만 일불승의 가르침에 대한 영해의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영해를 통해 수기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제9수학무학인기품」과 「제13권지품」에 등장하는 학·무학인은 범사행에 관한 설법을 듣고, 「제13권지품」에 이르러 모두 범사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운다.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학·무학인의 서원을 세웠을 때 석가모니불은 따로 응답이 없었으므로 이들의 서원은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권지품」의 학·무학인이 석가모니불에게 받은 수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내세에 범사가 되어 범사행을 실천함으로써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범사행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지만, 이들이 일불승을 영해하였다는 표현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수기는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학·무학인처럼 영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석가모니불에게 서원을 세웠으므로 이들은 서원을 통해 수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9수학무학인기품」의 학·무학인의 수기는 일불승의 영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제13권지품」의 학·무학인의 수기는 서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품에 나타나는 학·무학인은 모두 석가모니불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로 인해 청기와 수기의 내용과 시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원전류

『大般涅槃經』(T3)

『妙法蓮華經』(T9)

『妙法蓮華經文句』(T34)

『悲華經』(T3)

논문, 저서류

광도. 2017a. 『법화경(法華經)의 삼주설법상 성문의 근기에 관한 연구』 『불교학보』 78: 61-87.

광도. 2017b. 『법화경문의 묘해』. 논산: 금강대학교출판부.

김희재. 2023. 『법화경』 적문에서 성문근기에 따른 비유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58: 35-60.

나지용. 2018. 「천태지의(天台智顚)의 『법화경』 「방편품」 해석」 『인문학연구』 112: 115-147.

오진석. 2024. 「오시교에 따른 수보리의 관해 성숙」 『동아시아불교문화』 66: 93-120.

이기운. 2010. 「天台의 본적사상(本迹思想) 수용과 그 전개」 『한국선학』 26: 356-402.

차차석, 홍미경. 2023. 『법화경』에 나타난 혁신사상 고찰』 『불교문예연구』 22: 11-36.

최기표. 2013. 『法華經』에 있어서 授記의 修行論的 意義』 『불교학 리뷰』 13: 113-140.

하영수. 2021. 『법화경』은 일체중생의 성불을 설하는가?-세친 『법화경론』의 사중성문설을 중심으로-』 『한국사상학』 66: 1-39.

홍정식. 1963. 「성문승 수기작불의 의의」 『불교학보』 1: 389-412.

三戶勝亮. 1939. 『妙法蓮華經』- 授學無學人記品を拜讀して』 『南瀛佛教』 17: 24-28.

塩入 良道. 1955. 『法華論』의 說相における 授記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6: 706-708.

藤元 雅文. 2022. 「誓願一仏乘」試考』 『親鸞敎學』 116: 47-64.

A Study on the Predictions Given to the Śrāvakas in Training and the Adepts in the *Lotus Sutra*

Lee, Sang Gwon

(PhD Candidate,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Guemj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edictions [授記] granted to the Śrāvakas in Training [學人] and the Adepts [無學人] who appear in the first half of the *Lotus Sutra* [述門],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chapters where they receive such Predictions: Chapter 9, “Prediction for the Śrāvakas in Training and the Adepts” [第九授學無學人記品], which belongs to the Main Section [正分], and Chapter 13, “Encouragement to Uphold the Sutra” [第十三勸持品], which is part of the Dissemination Section [流通分]. In order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 their Predictions, the study first analyzes the structural distinction between the Main Section [正分] and the Dissemination Section [流通分], and then compares the content of the Predictions in the two chapters.

In the Main Section, Śākyamuni Buddha teaches the Dharma of the One-Buddha Vehicle [一佛乘] to lead the Śrāvakas into the same path of practice as the Bodhisattvas. This is carried out through the Three Rounds of Teaching [三周說法]: Direct Teaching of the Dharma [法說], Teaching through Parables [譬說], and Teaching based on Past-life Causal Relations [因緣說]. Although this teaching is primarily directed toward the Bodhisattvas, the Śrāvakas in Chapter 9 come to an Understanding [領解] of it through the True Teaching [正說]. On this basis, they receive Affirmation [述成] and

Prediction [授記] from Śākyamuni Buddha. By contrast, in the Dissemination Section of the first half of the *Lotus Sutra*, Śākyamuni Buddha emphasizes the Dharma Expounder's practice and its benefits. The Śrāvakas who appear in Chapter 13 receive Predictions only after Vowing [誓願] to undertake this practice. As such, the premise of the Śrāvakas Predictions in the Main Section consists of the True Teaching [正說], Understanding [領解], Affirmation [述成] and the Prediction [授記], whereas in the Dissemination Section, the premise comprises the True Teaching [正說], Vow [誓願], and Prediction [授記], thereby showing a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Based on these premises, this study analyzes the grounds upon which the Śrāvakas in Training [學人] and the Adepts [無學人] receive Predictions from Śākyamuni Buddha, as well as the content of those Predictions, as presented in Chapter 9 and Chapter 13 of the *Lotus Sutra*.

In Chapter 9 of the Main Section, the Śrāvakas in Training [學人] and the Adepts [無學人] come to an Understanding [領解] of the One-Buddha Vehicle through the Parable of the Apparitional City [化城喻], presented as the True Teaching [正說]. Following this, they receive Affirmation [述成] and Prediction [授記] from Śākyamuni Buddha. In Chapter 13 of the Dissemination Section, the Śrāvakas in Training [學人] and the Adepts [無學人] receive the teaching on the Practices of the Dharma Expounder [法師行] as the True Teaching [正說], make Vows [誓願], and receive Prediction [授記]. However, explicit expressions of Understanding [領解] are difficult to identify in this chapter.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ir Predictions are based on such Understanding [領解].

The Śrāvakas in Training [學人] and the Adepts [無學人] in both chapters, commonly make Vows to engage in the practices of the Dharma Expounder upon entering Chapter 13. When the Śrāvakas in Training and the Adepts in Chapter 9 made their Vows, Śākyamuni Buddha gave no explicit response. This suggests that their Vows were accepted. However, upon examining the

content of the Predictions [授記] received by the Śrāvakas in Training and the Adepts in Chapter 13, they are predicted to become Dharma Expounders in a future life and subsequently attain Buddhahood. This raises questions as to whether they truly realized the teaching of the One Buddha Vehicle [一佛乘]. Therefore, their Predictions [授記] are more appropriately understood as being based on their Vows [誓願]. Thus, although the Śrāvakas in Training and the Adepts in both chapters receive the same teaching, their Predictions [授記] can be distinguished as either being based on Understanding [領解] or based on Vows [誓願].

Keywords : Śrāvakas in Training and Adepts [學·無學], Three Rounds of Teaching [三周說法], Predictions [授記], Understanding [領解], Vow [誓願].

2025년	9월 6일	투고
2025년	9월 25일	심사완료
2025년	10월 2일	게재확정